“집 안 팔래요”…대선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 1583건 줄었다

대선 닷새 만에 서울 아파트 매물 3.2% 감소
같은 기간 경기·인천 아파트 3.8%·3.9% 줄어

대통령 선거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집주인들이 물건을 거둬들이고 있다.

14일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4만8548건으로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지난 9일 5만131건에 비해 3.2%(1583건) 감소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감소했으며 용산구(-5.5%), 도봉구(-5.2%), 광진구(-4.9%), 동대문구(-4.5%), 강북구(-4.5%) 등에서 매물 감소폭이 컸다. 서초구(-4.3%), 강남구(-4.2%), 송파구(-2.3%) 등 강남3구도 비슷한 양상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집을 팔겠다고 내놓은 집주인 가운데 일부가 매물을 거둬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에서 대출이나 규제, 세금 부분을 손을 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매도자 입장에서는 급할 것이 없어졌다”며 “일부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시장에서 매물이 다시 귀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경기 아파트 매물도 같은 기간 9만8115건에서 9만4401건으로 3.8% 줄었고, 인천 아파트 매물 역시 2만1365건에서 2만546건으로 3.9% 감소했다.

특히 시장에서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매물을 거둬들이는 양상이 더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30년 이상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 안전진단 평가항목 구조안전성 가중치 완화 등을 통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실제로 이 같은 규제 완화 기대감에 서울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서는 호가를 높이거나 매물을 거둬들이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대선 전부터 정권 바뀌길 바라면서 어떻게 할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사람이 많았다”며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재건축 물건을 보유한 집주인들은 집값이 더 오를 것을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최이슬기자

한국타이어 “잦은 제동·공회전만 줄여도 연비 20% 줄일 수 있어요”

테스트 통해 운행습관·타이어 공기압이 미치는 영향 확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가 상용차 타이어 관제서비스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타이어 관제서비스란 타이어에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 모니터링과 차량 운행 데이터를 관제 시스템과 연계해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운전습관 분석을 바탕으로 운전자에게 유류비 및 소모품 등 비용 절감 솔루션 제공이 가능하다.

한국타이어와 국내 전세버스 운수업체 이화항공여행사가 경기도 지역 통근버스를 대상으로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까지 약 14개월간 진행한 타이어 관제서비스를 시범 적용한 결과, 급가속, 급감속, 잦은 제동, 공회전 등의 운행습관이 연비와 타이어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운전습관 개선과 함께 타이어 표준 공기압 관리를 지속한다면 연간 약 100만원 상당의 연비 절감과 함께 타이어 수명을 약 20% 늘리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시험 결과 제동시간과 공회전이 많을수록 타이어 마모와 연료 소비가 높게 측정됨을 확인했다. 공회전이 가장 높게 나타난 차량은 다른 차량 대비 20% 이상의 연비 효율이 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잦은 제동과 공회전은 운전습관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

타이어 공기압의 경우 모든 차량에서 외부 온도 영향으로 겨울철(12~4월)에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표준 공기압인 120psi에 비해 겨울철은 저온으로 공기압이 낮아지는 최대 96psi까지 떨어졌다. 이는 표준 대비 20% 차이가 나는 결과로, 겨울철에는 차량을 표준 공기압으로 유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며, 최소 2개월마다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한국타이어는 이화항공여행사에 이번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운전자 교육, 타이어 관리, 차량 관리 등 3가지 항목에 대한 개선 가이드를 도출하고, 추적 테스트를 통해 솔루션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도 검증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제조 및 판매업에 고객 관점 데이터 분석과 활용 영역까지 입지를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타이어 선행연구담당 김성호 상무는 “타이어 품질에 대한 연구에 더해 실제 고객 관점에서 효율적인 사용 경험을 위해 전반적인 차량 관리부터 운전 습관까지 연구 분야를 확대 중”이라고 말했다.

이슬비 기자

한샘, 침실·거실가구 10종…편의·기능·디자인 고급화

침실 7종·거실 3종…프리미엄 추세 반영

한샘은 편의성을 높이는 기능과 고급 소재, 디자인을 겸비한 프리미엄 가구 10종을 올해 상반기 신제품으로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고 홈오피스, 홈카페 등으로 집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홈 인테리어에 대한 소비자 관심은 높아졌다.

또 홈 인테리어를 꾸밀 때 고급 소재와 우수한 기능성을 갖춘 고가의 가구나 조명, 소품 등 프리미엄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한샘은 침실가구 신제품으로 ‘유로 503 프레임 오크’, ‘밀란 303 스튜디오’ 침대 2종과 자체 매트리스 브랜드 ‘포시즌’의 신제품 ‘바움’, ‘란다’, ‘아이레’ 3종, 온라인 한샘몰 전용 옷장 ‘샘베딩 마일드’, ‘샘베딩 파스텔’ 2종 등 총 7종을 출시한다.

한샘은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계속되고 있는 호텔침대의 인기에 맞춰 침실에 호텔 인테리어를 구현할 수 있는 ‘유로 503 프레임 오크’ 침실세트를 출시했다.

‘유로 503 프레임 오크’ 침대의 표면소재는 독일 기업 레놀릿사의 마감재 ‘PP(Poly Propylene·폴리프로필렌)’를 사용해 오크(참나무) 질감을 구현했다. 침대헤드의 간접 조명과 침대 양쪽에 있는 간접 조명을 통해 무드 있는 침실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포시즌’ 바움·란다·아이레는 매트리스에 누웠을 때 체감할 수 있는 경도에 따라 구분된다. 숙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온도조절, 습도조절 기능이 있다. 탄력과 회복성, 통기성이 우수한 양모 충진재를 사용했다.

한샘은 거실공간 신제품 3종도 출시한다.

한샘의 올해 상반기 거실 소파 신제품 ‘바흐 902 몰트’와 ‘바흐 902 피트’는 내구성이 우수한 북유럽 자작나무를 내부 목대로 사용하고 이탈리아 가죽 회사 카도레의 황소통가죽을 사용하는 등 최고급 자재를 사용했다.

두 제품 모두 앉았을 때 부드러우면서 푹신한 중간 경도의 착석감을 느낄 수 있다. 색상은 ▲포레스트 그린 ▲클라우드 그레이 ▲샌드 베이지 ▲모스 그린 ▲웜 타우페 ▲크림 화이트 등 6가지 중 선택할 수 있다. 주문과 동시에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오더메이드 형식으로 생산된다.

한샘의 식탁 신제품 한샘 ‘유로 603 일리스’는 조약돌을 모티브 삼아 식탁 상판을 둥글게 가공하고 다릿발은 곡선형태로 디자인한 것이 특징이다. ‘유로 603 일리스’ 식탁은 내구성이 우수한 오크 원목을 사용했다. 상판원목의 갈라짐과 뒤틀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판 내부에는 고무나무 원목을 사용하고 외부에는 오크 원목을 사용한 ‘샌드위치 공법’을 적용해 안정적인 품질을 유지한다.

한샘 디자인본부 김윤희 상무는 “최근 리빙 시장에서는 집에 대한 질적 투자를 아끼지 않는 프리미엄 소비트렌드가 이어지고 있어 관련 제품들에 대한 고객들의 니즈(needs)가 높아지고 있다”며 “한샘은 이번 상반기 봄·여름 시즌 우수한 소재와 기능성을 갖춘 프리미엄 신제품 가구를 출시했다”고 말했다.

한샘의 상반기 신제품은 한샘디자인파크, 한샘인테리어 대리점 등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한샘몰에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김재환 기자

위메프, 오늘 ‘반값데이’ 최저가보다 50% 저렴

위메프는 15~16일 반값데이를 열고 온라인 최저가 대비 50% 이상 할인한 특가 상품을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이틀간 매일 6번 ‘타임세일’을 오픈한다. 0시, 9시, 12시, 15시, 18시, 21시에 걸쳐 총 60개 반값 할인 상품을 선보인다. 식품, 리빙, 패션, 가전, 유아동 등 카테고리를 총망라한 다양한 상품을 공개한다.

대표 상품은 폴로 키즈 베이직 폴리 카라, 쿠비녹스 안마기(CX-221CM), 구이요 곱창 떡볶이, 파크랜드 패턴 정장 재킷, 펫스토리 츄르 스틱새우, 비스카 무선 욕실 청소기, 허닭 닭가슴살 스테이크, 시크릿데이 미피 롱팬티라이너, 건국유업 가르시니아, 영라이즌 IH 그리들 등이다. 행사 상품 중 위메프가 가장 추천하는 ‘반값세일 강력 추천 상품’도 공개한다. 15일 앤디애플 브이넥맨투맨+팬츠 △진쿡 치즈돈까스, 16일 순수한면 슈퍼가드 울트라중형, 퀸즈맥시 노라인 햄팬티 등을 선보인다.

오유나기자

아시아나항공, ‘인천~나고야’ 재운항…일본 하늘길 넓힌다

작년 4월 말 운항 중단 이후 11개월 만에 운항 재개

아시아나항공이 4월1일부터 일본 나고야 운항을 재개한다.

최근 일본의 입국자수 제한과 입국격리 완화 추세에 맞춰 나고야 노선을 주 1회로 재개하고, 기존의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노선도 증편 운항한다고 밝혔다. 나고야 노선은 2021년 4월29일 운항을 마지막으로 11개월만의 재운항이다.

인천~나고야 항공기는 인천공항에서 오후 8시30분에 출발해 현지시간 오전 10시25분에 나고야 중부공항에 도착, 현지 시간 오전 11시25분에 출발해 같은 날 오후 1시30분에 인천공항에 돌아온다.

일본 주요 노선들의 운항 횟수도 늘린다. 이달 27일부로 인천~나리타 노선은 주 6회에서 매일 운항으로, 인천~오사카 노선은 주 3회에서 주 5회로, 인천~후쿠오카 노선은 주 1회에서 주 2회로 각각 증편 운항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여 일본 노선을 확대했으며, 대한민국-일본 간 무사증 입국제도 및 자가격리 완화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 추가 증편운항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3월 들어 일일 입국 제한 인원을 35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린데 이어, 14일부터는 700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대한민국 출발 백신접종 3차 완료자의 일본 입국 시 자가격리도 7일에서 3일로 줄었다.

일본 입국 시에는 ▲일본으로의 출발 72시간 이내 검사 후 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서 ▲입국 전 전자 질문표 작성 ▲스마트폰을 필수로 소지해야 한다(미소지 시 자비로 스마트폰 렌탈 필요). 백신 3회 접종 완료자(얀센의 경우 1회를 2회로 인정)는 증명서 소지 시 3일 자가격리, 증명서 미소지 시 3일 시설격리 후 4일 자가격리가 필요하다.

최이슬기자